



기독시민운동중앙협의회, 제7회 정기총회

신임 대표회장 원종문 목사, “성경 기반한 기독교적 시민운동 필요”

회화와 평화를 통한 한반도 통일시대의 한국교회를 준비하는 기독시민운동중앙협의회가 지난 11월 3일(목) 서울 연지동 여전도 회관에서 제7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에 원종문 목사를 추대했다.

신임 대표회장에 선임된 원종문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금의 시대는 시민운동이 매우 절실히 필요한 시기로서 특히 무엇보다 성경에 기반한 기독교적인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부족한 사람을 추대해 주셔서 어깨가 매우 무겁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분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매는 증경회장 정재규 목사의 사회로 예정합동 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필드의 신앙’이란 주제로 설교를 전했다.

이어 특별기도 시간에는 김동권 목사(예정합동 증경총회장)가 ‘대통령과 국가안전



을 위하여’, 최윤권 목사(그리스도의교회협 증경총회장)가 ‘북핵 폐기와 남북통일을 위하여’, 최병두 목사(예정합동 증경총회장)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를 주제로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조일래 목사(한교연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통일연합종교포럼 총재), 이혜운 의

원(새누리당 조찬기도회장)이 축사를 김영진 장로(국가조찬기도회 초대회장), 박위근 목사(세기총 초대회장)가 각각 격려사를 전했다.

특히 김요셉 목사는 축사를 통해 “신임 대표회장인 원종문 목사가 섬김의 리더십을 두루 갖춘 참된 지도자임을 감동하며 앞으로 단체의 변화와 발전이 매우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혜운 의원은 최근 최순실 사태로 인해 시국이 매우 불안정한 점을 언급하며 “기독교인들의 좀 더 깊은 반성과 기도가 요구될 때”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의 사태를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했음을 반성하게 된다”면서 “이 모든게 권력, 정치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외치지 못한 우리 기독교 의원들의 죄”라고 고백했다.

한국교회 원로목회자, 구국기도회 개최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이사장 임원순 목사)은 지난 11월 7일(월) 서울시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월 15일 오전 10시 반,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 원로목회자 구국기도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도회는 ‘주여 이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 후援회와 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가 주관하며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

재단이 주최한다. 최근 일련의 시국 혼란과 관련, 대부분의 기독교단체와 교회에서는 이를 한국교회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에 동참하며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로목회자재단 역시 나라의 위기를 통감하고 국가의 원로로서 구국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 임원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나라의 죄는 회개하지 않은 우리들의 죄이며 “우리가 진정 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한다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던 뜨거운 기도가 살아나야 한다”고 고백하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치할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한국교회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5일(화) 구국기도회는 원로목회자를 대표해 한국기독교원로목회사회 증경회장 최복규 목사가 나라를 위하여 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고, 한국교회연합 명예회장 김동권 목사가 대표기도, 한영목회자를 대표해 한기총명예회장 이태희 목사가 ‘위정자를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전하게 된다.

또 한국범죄예방국민운동본부 한은수 감독과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상임이사 김경래 장로가 대표기도를 평신도를 대표해 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 총재 정근모 장로가 ‘국민을 위하여’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대기총 부흥사협 대표회장 취임예배

한정동 목사, “부여된 사명 기도로 감당하겠다”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이사장 이선 목사, 총재 조광동 목사)는 지난 11월 3일(목) 오전 11시 한국100주년기념관에서 부흥사업의회 대표회장 취임예배 및 11월 기도회를 갖고 부여된 사명을 기도로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상임회장 김무기 목사 사회로 상임회장 이우자 목사(대신 보수총회 총회장)의 대표기도, 총재 조광동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조광동 목사는 요 13: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천년기는 대기총’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한국교계를 보면 있다가 없어지는 단체가 많다. 그러나 대기총은 이러한 전철을 밟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인간적인 사랑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단체가 되면 천년기는 대기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사장 이선 목사는 축사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름을 보고 있다. 안으로 들여다 보면 이는 영적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이름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 뿐이기에 우리는 대표회장을 중심으로 부흥을 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아진 취임예배는 부흥사 대표회장 한철동 목사에 대한 취임패 증정, 이에 대한 대표

회장의 인사, 상임회장 최분수 목사(예정아 가페총회 총회장)의 한국기도에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상임회장 방교영 목사가, ‘한국교회부흥과 세계선교를 위하여’ 상임회장 송진태 목사가, ‘각 종파와 단체를 위하여’ 상임회장 정형기 목사가 특별기도를 인도한 후 상임회장 이용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성연, 사회복지 컨퍼런스 개최기로

오는 12월 12일(월) 성결대에서

한성연 총회는 11월 4일(금) 오전 팔래스 호텔에서 총무단회의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한성연 목회자 체육대회 결과에 대한 보고가 먼저 있었으며 이어 한성연 교단명칭, 신년하례식, 성결인의 대화, 비전선언문, 사회복지 비전컨퍼런스 등 다섯개의 안건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회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한성연 교단 명칭에 대해, 기존 ‘한국성결교회 연합회(한성연)’를 앞으로 ‘한국성결교회(예성, 기성, 나성) OOOO’로 하기로 하고 최종 사용 기준은 각 교단 총회에 서 인준을 받아 사용하기로 했다.

둘째, 2017년 한성연 신년하례식은 내년

1월 24일(화) 오전11시로 하며, 장소는 추후에 공지하기로 했다.

셋째, 성결인의 대화는 2017년 3월 5일 오후 4시에 성결대학교에서 하기로 했으며, 모든 진행은 한성연 총무단 지도하에 각 교단 대표(예성:송용현 목사, 기성:송재홍 목사, 나성:한만기 목사)와 실무자들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넷째, 비전선언문은 성결대, 서울신대, 나사렛대에서 6명의 신학자들(위원장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이 작성한 내용을 검토한 후 신년하례식 때 선포하여 사용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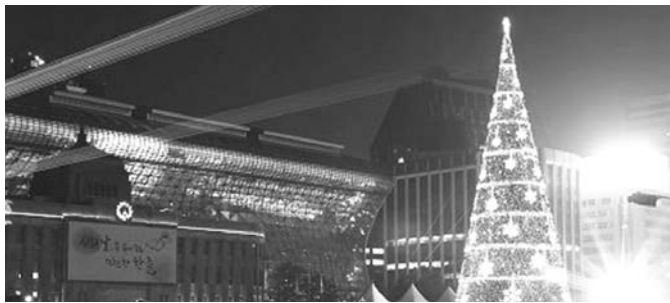
다섯째, 한성연 사회복지 비전컨퍼런스는 2016년 12월 12일(월) 오후 1시부터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 이원국제회의실에서 갖기로 하고, 순서는 각 교단 총회장과 총무, 복지분과 위원들과 교수들이 맡기로 했다.



CTS, 예상대신 2016 대한민국 성탄 축제 개최

26일 성탄트리 점등식 전 세계 생중계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와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총회(총회장 이종승 목사)는 올해로 15화제를 맞는 2016 대한민국 성탄축제를 오는 11월 26일(토) 오후 5시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하고, 대형 성탄트리 점등식을 갖는다고 7일 밝혔다.



매년 서울시청 앞 광장을 밝게 비추는 2016 대한민국 성탄축제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기쁨을 함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나눔과 봉사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연말연시를 위해 마련되었다.

CTS를 통해 26일 오후 5시부터 60분간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 되는 이번 2016 대한민국 성탄축제는 양병희 목사(한국교회연합 명예회장)가 성탄메시지를 전하고, CTS공동대표이사 전용재, 채영남, 박무용 목사, 예상대신 이종승 총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마크 리퍼트 주한미대사 등 정관계 인사 등 교계 및 정계 인사가 점등인사로 참석해 성탄트리에 불을 밝힌다.

이아진은 축하무대는 예상대신 소속 10개 교회에서 100명씩 참가한 1,000명의 연합 성가대가 기본 성탄을 축하하는 합창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하는 CTS 감경철 회장은 “대한민국 성탄축제를 통해 성탄의 참 기쁨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닮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따뜻한 나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크리스천리더스아카데미, 밥퍼사역

서울역 노숙자형제와 헌신예배로 드러

각 분야 크리스천 리더로 구성된 크리스천리더스아카데미(CLA(원장 장현일 목사)가 CLA총동문화회장 오수일 장로와 함께 지난 11월 2일(수) 오전 11시 서울역 신생교회(담임 김원일 목사) 노숙형제저매 500여 명에게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노숙형제 밥퍼사역을 실시했다.

이날 크리스천리더스아카데미 10기 회원들은 총동문화 원우들과 함께 노숙형제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안으로서 따뜻한 점심식사를 정성껏 대접했다.

이날 밥퍼사역 전에 “서울역 노숙형제와 함께 드리는 CLA10기 헌신예배”도 드렸다. 조인석 전도사의 사회로 시작된 헌신예배에서 장현일 목사(생명나무교회)는 마 11:28 말씀을 본문으로 ‘내게로 오라’라는 제의의 설교에서 “우리 죄짐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



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피난처이며 반석이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고 강조하며 “예수님이면 충분하니 예수님게로 돌아가자”고 전했다. 대표기도는 유정모 집사, 봉헌기도 조한주 집사 특주에 신영진 안수집사 등 CLA10

기가 중심이 되어 드러진 헌신예배는 서울역 노숙형제들과 사랑을 나누고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뜻 깊은 봉사활동이 되었다. CLA회원들은 각각 여러 방법을 통해 서울역 노숙형제들을 섬겨오고 있다.

제1회 다문화부부초청 오리엔테이션

세기총, 다문화가족 위로 및 질적 삶 향상시켜주고자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시영 목사)는 지난 11월 8일(화)부터 10일(목)까지 2박 3일동안 제주도에서 개최한 ‘제1회 다문화가정 부부초청 부부교실’에 앞서 11월 1일(화) 오후 6시 서초동 예술의전당 앞 백련옥에서 50여명의 다문화 가족과 행사진행자들이 모인 가운데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세기총 대표회장(고시영 목사)과 문화위 원장(정서영 목사)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위로하고 한국생활의 질적 삶을 향상시켜 주고자, 2015년도 제1회 다문화가정 진정부모(가족초청행사를 시작으로, 지난 2016년 5월 2일부터 12일까지서울 및 용인시 일원에서 제2회 행사를 진행하였음을 피력하고, 세기총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다문화 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부교실을 계획하기에 이르렀으며 다문화가정의 부부간 성령



등과 인연에 있어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사업을 위해 본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전했다.

이울러 진행위원장(방광철 목사)은 오늘 오리엔테이션이 있기까지 시간이 촉박하였지만 협조하여 준 다문화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SNS(문자 및 카톡)를 잘 이용하여 주기를 당

부하면서 저녁식사를 나누며 다문화가족들의 문의사항을 듣기도 하였다.

오리엔테이션 후 참석한 가족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고 따뜻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로 이동하여 오후 8시부터 겨레사랑 2016 한국가족 페스티벌을 관람하면서 모임을 마무리하였다.

후원감사의 밤 ‘패밀리데이’ 개최

월드비전 후원자·자원봉사자·홍보대사들 참여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은 지난 11월 4일(금),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홍보대사들을 초청하여 다같이 나눔의 기쁨을 공유하고 후원자로서 유대를 다지는 후원감사의 밤 ‘2016 월드비전 패밀리데이’를 개최했다.

올해는 베트남 호아방 사업장과 방글라데시 썬더번 사업장의 자립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 마을이 자립 했어요’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아동을 후원했던 후원자들을 포환하여 월드비전을 통해 해외 아동을 후원하고 있는 후원자 400여 명이 참여했다.

후원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또 월드비전과 나눔에 동참하고 있는 친선·홍보대사들이 재능 나눔으로 참여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월드비전을 통해 280명의 아동



을 후원하고 있는 정애리 친선대사와 방송인 분이 사회를 맡았으며, 1994년 월드비전의 국내 최초의 동전 모금 ‘사랑의 뽕’ 캠페인에 동참한 박성민 친선대사의 ‘나눔도크’를 통해 나눔의 의미에 대해 후원자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10년부터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박정아 홍보대사와

〈더 히든〉이 재능나눔으로 출연하여 멋진 축하공연을 선보였다.

특히, 15년 간의 사업을 마치고 ‘지립’한 방글라데시 썬더번 사업장에서 성장한 아동 무수미 보스(25)를 한국으로 초청, 1998년부터 15년간 후원했던 후원자와 감격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순복음공산목양교회 사택보수공사비 지원 절실

고난의 농촌목회에 힘이 되어 주길



김정식 목사

나주 공산면에 위치한 소박하고 아름다운 순복음공산목양교회. 이곳에는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성도들의 편안함을 구하는 목회자 김정식 목사가 있다.

김 목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평생목표로 농촌복음화를 위해 이곳에서 목회를 시작했지만 농촌목회는 상상 이상의 불편과 인내가 필요했다. 특히 1996년 지어진 사택은 조립식 판

넬 건축물로 이제는 수명이 다 되어 작은 비도 막아주지 못하고 70대 중반인 김 목사와 사모의 건강을 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여기저기 무너져 내린 데다 비는 커녕 바람도 막지 못하는 탓에 외풍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허다했다.

새벽 기도를 위해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부딪고 아프다는 아내를 보며 김 목사는 큰 마음을 먹고 보수공사를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공사비 1천만 원 중 5백만 원 가량의 공사비가 부족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게다가 생각보다 일찍 찾아온 겨울은 머물 곳 없는 김 목사 부부를 더욱 격정스럽게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광주 지방회에서 50만원을 급히 지원하였으나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에 김 목사는 "농촌교회에 힘이 되어 달라"며 재정지원과 기도를 부탁하였다.

순복음공산목양교회
나주시 공산면 동촌리 1059-2
농협 637046-52-072121
김정식 목사 010-2918-8291



부부동반추계단합대회 통해 지방회 화합 다짐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김영인 목사)는 지난 10월 27일(목) 부부동반추계단합대회를 갖고 유난히도 길고 무더웠던 지난 여름동안, 사역현장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 9시 광주신학교를 출발한 회원들은 지리산 노고단 일부 코스를 둘러 본 뒤, 온천지대인 산동에서 수목을 겸한 휴양소 보양식으로 체력을 보강하고 피아골 계곡으로 이동 울긋불긋 물들어가는 대자연의 섭리에 감탄하며 산행을 마치고, 화합의 장소인 화개장터로 옮겨 건강보조식품과 특산품을 청



진 후 부쩍 짙어진 가을 햇살을 아쉬워하며 섬진강변의 별미인 잡채 매기매운탕으로 만

찬을 나누며 지방회의 단합과 화합을 다짐하는 훈훈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심신의 피로 풀며 충성된 목회자 될 것 다짐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최병진 목사)는 지난



11월 8일(화) 오전 11시 순창순복음교회(김종호 목사 시무)에서 월례회 및 추계야유회를 갖고 지방회 화부처리와 회원들의 단합 도모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1부 예배는 김상운 목사(성광순복음교회)의 사회, 표재욱 목사(성령알곡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최병진 목사(이산은혜와진리교회)의 설교, 김종호 목사(순창순복음교회 중경회장)의 축도 순으로 드러났다.

최 목사는 시 136:1-4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자'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지방회 모든 교회들이 감사의 열매가 가득하여 매일의 감사가 있기를 당부했다.

2부 월례회에서는 전회의록 낭독과 총무보고, 회계보고 등 각종 회무를 보고를 통해 지방회 회무를 처리했으며, 이어진 3부 전교와 교제시간에는 지방회의 주관으로 오찬과 강령산 산행, 그리고 담양온천에서 사우나로 피로를 풀며 서로에게 목회의 좋은 정보와 주고받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야유회 목회경험과 간증 나누며 화합 다짐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임흥택 목사)는 10월 월례회 및 추계야유회를 지난 10월 20-21일 인천 앞바다에 있는 소이작도에서 가졌다.

다소 쌀쌀해진 날씨 속에 대부분을 출발한 여객선은 1시간 40여분 만에 아름다운 소이작도에 도착했다. 코앞에 마주한 대이작도와 소이작도는 서로 정겹게 팔을 벌려 품는 모습으로 환영했으며 마침 건조 시간이어서 드넓은 개펄이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경기중앙지방회 일행은 미리 예약한 펜션에 여장을 풀고 쫓겨탕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후 개펄체험과 물고기 잡이를 하며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창조신비에 감사드렸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한지리에 모인 지방회 회원들은 교단 총회장 조남영 목사 주재로 월례회 겸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조 목사는 화목하고 내실 있는 지방회로의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지방회의 연합과 발전을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하였으며 지방회 회원들과 교회를 위한 축복기도로 모임을 마쳤다.



이후 가을 밤 바다바시와 섬 농성을 따라 걷는 트래킹 등 야외 활동을 즐기고, 서로 목회 경험과 간증을 나누며 영육간에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복음심원교회, 박운석 담임목사 취임예배

전북서지방회

전북서지방회(회장 김중곤 목사)는 지난 11월 8일(화) 고창 순복음심원교회에서 김철성 목사(은퇴) 및 박운석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1부 예배는 총무 양희철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양경성 목사의 기도, 서기 김훈배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지방회장 김중곤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행 1:8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는 사명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의 종으로서 헌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2부 취임식에서는 지방회장 김중곤 목사의 취임서약 및 공포, 강희동 목사



(예수시랑제자원장)의 권면에 이어 중경회장 박상규 목사의 축사와 지방회장 김중곤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며 순복음심원교회의 부흥을 축복했다.

체육대회 자연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드려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이성석 목사)는 지난 11월 1일(화) 동해숲체육공원에서 가을체육대회를 갖고 회원간 단합을 도모했다.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권점식 목사의 인도로 부회장 이동복 목사의 기도, 회장 이성석 목사의 설교, 적전회장 오경덕 목사의 축도로 드러났다. 회장 이성석 목사는 말씀을 통해 말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하는 사명자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이 없는 진실하고 깨끗한 목회를 할 것을 부탁했다.

2부 체육대회는 체육부장 김진희 목사의 인도로 배구, 제기차기, 보물찾기 등 운동을 하면서 함께 웃고 즐기며 각 교회별로 준비



한 풍성한 음식과 다과를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마침 기도를 통해 회장 이성석 목사는 원과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으며, 참석한 목회자와 시모들은 주님의 일을 맡은 동역자로서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고 섬김의 사역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월례회 국가 안정과 교회 부흥 위해 기도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엄기설 목사)는 지난 11월 9일(수) 오전 11시 대전하늘사랑교회(담임 석인권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혼란한 국가의 조속한 안정과 교단과 지방회발전, 지방회 각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바탕 되어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미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만규 목사(좋은나무교회)의 대표기도, 전 교단 총무 김병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딤후 2:20-21 말씀을 본문으로 '귀하 쓰는 그릇'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 받는 목회자가 되자고 당부하고 회원

들을 축복했다.

이어서 지방회장 엄기설 목사의 헌금기도 및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서기 석인권 목사의 회원점명, 총무 이미순 목사의 총무보고 및 회계보고가 있었으며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정운기 목사의 폐회기도로 월례회를 모두 마쳤다.



이어서 하늘사랑교회에서 정식으로 준비한 오찬을 영산강 민물장어 식당에서 나누면서 따뜻한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단합대회 적산산에서 자연의 아름다움 감상

대전지방회

대전지방회(회장 엄기설 목사) 지난 10월 27일(목) 전북 무주에 있는 나재 통분(신라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의 통분)과 태권도원 그리고 적산산을 둘러보며 심신을 강건케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은 이날 아침 금산순복음교회(담임 김명목 목사)에 모여 국기와 교단 그리고 지방회 각 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마친 후에 차량 3대에 분승하여 무주 태권도원을 향해서 출발하였다. 마침 태권도원에서 보여주는 태권도 시범을 관람한 후에 이어서 나재 통분을 둘러보면서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의 관문인 비유로 된 통분을 본 뒤 지방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중식을 나누면서 회원간의 우의를 나누었다.

이어서 단풍이 아름다운 적산산 정상에



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꼬불꼬불한 길을 걸어 산 정상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손씨인 삼라만상을 구경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였다.

단풍구경 후에 대전으로 복귀하여 은혜와찬양교회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대전 서구에 위치한 바질리코에서 함께 하면서 회원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야유회 단합대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 생명의 말씀 ■



임영광 목사

· 경기지방회 중경회장
· 6포 병역단 민간성직자회 회장
· 연천순복음교회 담임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되 나를 따라 오나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였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가지로 배에서 그물 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주님께서서는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떤 각오와 결단으로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1.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십자가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수고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셨기에 우리도 마땅히 내가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슈마이어의 조사에 의하면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도들은 다음과 같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감에 질려 순교했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시가지에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순교를 당했고, 누가는 감람나무에서 목 베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목이 베어 순교했고, 바돌로매는 화형을 당하여 순교했고, 안드레는 십자가에 매어 순교했고, 유다는 화살을 맞아 순교했으며, 맛디아는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고, 사도 바울도 목이 베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영광을 찬양하며 주를 따른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바로 지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2.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 8:31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으로 순종해야 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거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 15:4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그의 자서전에서 “나는 성경 한 장을 보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미국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3.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우리에게 각각 직분을 주신 것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로서 끊임 없는 기도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 주님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빌 2:5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하셨습니다.

2)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마 6:33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 황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딤후 4:1-2에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할례와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4)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행 1:8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5)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병든 자를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품고 모든 영혼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자는 1.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요, 2.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요, 3.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을 보였다. 노예미야 선지자는 망하고 무너진 조국을 위해 울었다. 그는 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중수(重修)하였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못한 것, 스스로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아니한 것, 지도자들을 향하여 바르게 할 것을 요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통회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결과를 닦고, 원망하고 사비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일부 개인적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거룩한 큰 뜻을 이루지는 못한다. 아저 일반 정치가들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먼저 하겠는가? 요나의 말처럼,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을 나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국민들의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분께 자혜와 능력을 구하자. 지금은 애국의 외침이 필요한 때이다.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때이다.

동 정

박영률 목사 난빛문학상 수상



박영률 목사가 제1회 난빛문학상을 수상했다. 서울시 소속 난빛문화원이 주최한 제3회 난빛축제에서 이 상을 받은 박영률 목사는 마포분원 회장으로 마포문학상을 제정하고 ‘사상과 문학’ 발행인으로서 문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해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ACTS 신학포럼 ‘선교신학’ 주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총장 김영욱, 이하 ACTS) 부설 신학연구소가 주최한 ‘제4차 ACTS 신학포럼’이 10월24일 본교 강당에서 ‘ACTS 신학공론과 선교신학의 중심진리’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ACTS가 펼치고 있는 ‘신학공론 운동’은 기독교 신학의 이론과 실천 모든 분야에서 복음 신앙을 통한 구원이라는 신앙과 삶의 전 영역에 적용하고 구현하려는 운동이다.

성결신문사 사장에 이철구 장로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이동석 목사) 제8대 성결신문사 사장에 강서교회 이철구 장로가 취임했다. 10월31일 오전 총회본부에서 열린 이·취임식은 예배, 이임식, 취임식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부총회장 김원교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에서는 예성 여전도회 전 국연합회 성가대의 찬양 후 총회장 이동석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컴패션밴드 10주년 기념 콘서트



국제어린이양육기구 한국컴패션(대표 서정인 목사)은 12월 서울 서초구 바우피로길 더케이아트홀에서 ‘컴패션밴드 10주년 기념 앵콜 콘서트’를 진행했다. 가수 황보, 심태윤, 김범수를 비롯해 홍보대사 가수 선이 지누와 함께 출연했다. 컴패션밴드는 발라드 가요 무용비보잉까지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무한 권력은 무한 책임까지 져야 한다

진정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바라지도 않았으며,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다. 어쩌다가 우리 정치가 이렇게 추락하는가? 모든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우울하기까지 하다.

일련의 사건들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서 비롯된 것이라서 더욱 그렇다. ‘실마’ 하며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리던 생각이, 대통령의 입으로 실로되는 것을 보면서 무너졌다. 그간의 언론보도가 얼마나 진실에 가까울까? 또는 정말 사실일까에 대한 의문들도 부질없이 무너졌다.

지금 국민들의 마음은 크게 무너져 내렸다. 아니, 절망하고 있다. 대통령에게 사적(私的)으로 가까이 있던 사람이 국정(國政)에 관여한 흔적이 분명해지며, 거기에 상상하

기 어려운 범죄적 비리까지 드러난 마땅이라, 어떤 말로도 현재 상황을 변명하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여성 대통령의 등장을 자랑스러워 여겼다. 정치 선진국인 미국보다, 또한 중국과 일본에도 없는, 우리 정치가 민주화를 넘어서, 선진화의 진입이라고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 사태는 순수하지 못한 정치권의 선동과 대치와는 다르게, 시민들로 하여금 연일 분노케 하고, 심지어 대통령의 최종 책임까지를 요구하는 상황은 매우 곤혹스럽고 아프게 다가오고 있다.

그렇지만, 당장 대통령 한 사람이 물려나는 문제의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엄위한 현실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이다. 국가안보는 정치적인 수사(修辭)가 아닌, 그야말로 국

민생존의 문제이다. 경제도 더 이상 추락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19세기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열강들의 각축장의 재판(再版)이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작금의 위험한 국제질서와 관계를 절대로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국정최고의 책임자와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가 무엇인지, 숙고해야 한다. 반드시 국가적 혼란은 피해야 한다. 현금(現今)의 정치사적 혼란이 큰 비용을 치른 후에 얻어지는 것이려면, 국가와 사회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피해자로 전락시킬 것이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스스로 책임감과 함께,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수사 당국에는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하

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것이 약속대로 지켜지고, 누구도 사사로이 국정에 개입하는 일이 사라지며, 국가 원수 주변에서 이권을 쥘려는 일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란다.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 독일을 위하여 눈물로 호소하던 피아테(Fichte)의 ‘조상들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을 두고 맹세’ 하던 진정, 애국 애족의 목소리를 내는 지도자를 찾고 싶은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국가와 사회 지도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가를 돌아 볼 일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대 사람들과 조상들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



영신상조(장례전문) 100%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택일), 영정꽃,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1호 196만원 2호 3호 는 가족들의 선택임 >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목회자칼럼

서헌철 목사 // 장로교신학 학장, 장신교회 담임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작금의 대한민국이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이러한 때에도 예외 없이 교계를 바라보는 눈은 그리 곱지 않다. 교계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2012년 10월 4일 아침 MBC TV의 보도와 함께 각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보도한 우리의 치부가 지금 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다. 이는 성스럽다는 총회 장소에 용역들이 배치되고, 가스총이 등장 했다는 보도에, 그 누가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이타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이라고 말하며, 따뜻한 눈길을 주기를 기대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의 이름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데, 사유도 알 아보지 않고, 기독교를 폄훼하기 위해 다분히 의도적 인 보도라고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말하기도 너무 멀리 온 것은 아닌가? 그러나 개혁주의 전통과 전통을 강조하는 보수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개신교의 지도자들은 사이비들이 활개 치는 한국의 정치에 왜 조금의 역할 이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을까?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다.

CBS는 “국정농단을 한 최순실 씨처럼 청와대를

드나들었던 여자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다 는 증언이 나왔다. CBS와 단독으로 비공개 인터뷰를 한 인물은 이단의 원조격인 전도관(현 천주교)을 장 립한故 박태선 씨의 최측근이다. 박 장로의 최측근 A 씨는 “박정희 정권시절 당시 전도관 신도 장00 씨가 청와대를 들락거리며 신앙촌(전도관 신도들의 집단 공동체)에서 생산한 담요나 내복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증언했다.”(출처 : 2016-11-11 09:08 CBS노컷뉴 스)는 단독 보도를 하였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소명·사 명·분명한 주장은 타인의 이름이나, 한 생명의 귀중 함, 한국교회의 미래는 이렇듯 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 리사욕을 위해 모든 것을 가공하고 포장하기에만 급 급하면서도 “은혜로 합시다! 사랑 합시다!”란 말로 다종의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를 원했을 뿐, 사이비, 이단 등이 활발하는 때에 정치권, 기업 등에 조언이나 영향 등을 주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어떻 게 이해하여야 할까?

동물 중에는 무리사냥에서 슬쩍 빠지는 침팬지나, 적이 나타나다고 거짓정보를 흘려 혼자 벌레를 독식 하는 양체 새도 있지만, 많은 동물들은 종족을 살리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한다. 돌고래들은 부상당한 동료

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물 위에 뜨게 붙잡아주고, 휴혈 박쥐는 2-3일 동안 피를 먹지 못하면 죽지만 동료를 살리기 위해 피를 토해 나눠준다. 병정개미는 침입자 에 대항하여 싸우고, 벌은 침입자를 향해 집을 쏘고 죽음을 맞이한다. 아미들은 자기 새끼들이 위험에 처 하면 스스로를 희생한다. 따라서 생물학자들은 인간 의 이타행동이 유전적으로 결정된 본성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남을 돕고자하는 특성들이 세대를 거쳐 내 려오면서 후세에 전해졌다는 것이다.(출처 : 유쾌한 심리학)

무리사냥에서 슬쩍 빠지는 침팬지나, 적이 나타났 다고 거짓정보를 흘려 혼자 벌레를 독식하는 양체 새 같이 아니 그보다도 ‘늑대요 이리가 양의 털을 쓰고 있다’는 소리만은 듣지 않아야 할 터인데 현실은 그 렇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2016년을 마감해 가면서 너무 큰 아픔이 대한민국에 회오리치고 있기에 나라와 국민을 위해 우리 한국교 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 며 저희 멸망은 자기 아니하느니라”(렘후 2:3)



여수수아칼럼

문찬우 목사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호수아교회 담임목사, 캐나다 Pacific Life Bible College 졸업 (M. A.), 한세대학교 목회학석사 졸업 (M. Div), 호서대학교 신학박사 졸업 Th. D), 홍익대학교 광고홍보 대학원 과정중

히틀러는 누구인가?

(요 8:7)



소설가 겸 비평가인 버지니아 울프(Adeline Virginia Woolf, 1882 - 1941)는 『야간공습 중에 평화를 생각한 디』라는 에세이에서 제 2차 세계 대전의 공포를 온 몸으 로 느끼면서, 그 끔찍한 전쟁의 원인에 대해 생각하다가 이렇게 자문자답했습니다. “히틀러는 누구인가? 히틀러 는 무엇인가? 그것은 짐작하려는 욕망이다.”

그녀는 당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불행의 원인은 단 지 아돌프 히틀러라는 한 개인만이 아니라 - 근본적으 로는 - 인간(혹은 인류사)에 스며있는 배타적 공격성이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독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 종이에 ‘무장 해제’라고 쓰면 할 일을 다 이루려고도 진심으로 믿는 가?” 히틀러가 제거되고 잠시 평화의 무드가 세상을 덮 는다고 해도 그것은 잠시뿐, 세상은 다시 전화(戰火)에 휩싸일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녀의 말은 히틀러에겐 아무 책임이 없대거나, 히틀 러는 그저 역사의 희생자일 뿐이라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히틀러라는 돌연변이를 낳은 것은 단지 그의 부모만이 아닌 인류사회 유전자에 스며있는 중요 심이기도 하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영국의 사회학자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 - 1903)가 주장했던 사회유기체설(social organism theory)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논란을 제공하는 오래된 학 설이지만, “개개인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집합으로 이루 어지는 사회라고 그렇게 고착화된 사회는 다시 개인의 사고와 행동양식을 지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독특 한 주장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개전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사회 적 분위기와 시대의 흐름을 초월해 독자적으로 자기만 의 생을 구축할 수 있는 개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러므로 우리는 - 한 개인을 비판하기 이전에 - 우리들이 모여 사는 오늘의 이 사회는 어떠한 사회인가를 따져봐 야 합니다. 한 사람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라날 수 있는 사회인가 아니면 히틀러와 같은 돌연변이가 태어나고 자라나게 될 사회인가. 만약 세상의 악과 고통에 대한 그 러한 연대적 책임감이 없다면 과연 우리를 모두가 외치 는 사회란 무엇이고, 사회를 구성하는 자들의 시민의식

이란 어떤 존재가치를 지닐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간음 중 현장에서 붙들려온 한 여인을 분기가 가득하여 죽이려 했던 이스라엘의 군중을 향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여인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측컨대, 예수님께서 지목하신 대상인 ‘너희’에는 단지 현장에 있었던 개별적 죄인들만이 아닌, 구조적으로 죄성(sinful nature)을 지니고 있었던 이스라 엘 사회가 포함됐을 수도 있습니다. 즉, 결벽에 가까운 도 덕주의를 내세우고 있었지만, 희를 칠한 무덤과 같이 시 커렇게 씩어버린 유대사회야말로 그런 여인이 등장할 만 한 무대가 아니겠는기하는 지적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라! 너희 사회를 임원리에 지 배하고 있는 공동체적 욕망과 이 여인의 죄가 무관한 것 이냐?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단아한 하나님의 신부처 럼 정의라는 이름의 단정한 옷을 짜 입고, 그 얼굴에는 진리의 말들로 분칠을 해 놓았지만, 그 속으로는 부와 권 력과 욕망과 내밀히 연애하고 있었던 너희 이스라엘 아 니냐? 그렇다면 이 여자가 말로 너희의 그 음란한 사회 가 낳은 천지가 아니겠느냐!”

버지니아 울프는 그 글을 마무리하면서 - 그릇된 교 육과 전통으로 - 제2, 제3의 히틀러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세상을 향해 다소 낭만적으로 느껴지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영국 청년들이 자기 내면에 잠재 된, 메달과 훈장에 대한 애착을 뿌리 뽑도록 도와야 한 다. 내면의 투쟁 본능, 잠재의식에 숨은 히틀러주의를 정 복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위해 더 고결한 활동들을 창조 해야 한다.” 단지 확성기로 외치는 ‘정의사회구현’, 즉 그럴듯한 정치적 제스처어(politically correct gestures) 는 또 다른 중요와 악만 낳을 뿐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잠재의식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히틀러주의 는 개인과 사회가 바리새주의적인 위선의 가면을 벗을 때에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한 사 람 한 사람이 모여서 만드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이 사회 곳곳에 (아픈으로부터 시작 하여 젊은이까지) 만연된 물질만능주의, 권력지상주의, 패 략주의의가 제2, 제3의 히틀러를 잉태하기 때문입니다.

제1회 웨스트민스터 콘퍼런스 인 코리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지난 11월 8일 대우동신교회에서 ‘제1회 웨스트민스터 콘퍼런스 인 코리아’를 개최했다. 학문적인 탁월성과 그 리스도인의 경건을 동시에 추구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는 개혁주의 신학으로 한국 신학계와 교계의 많은 지도 자들을 배출하여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학교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피터 릴백 총장과 데이비 드가너 부총장이 직접 방문하여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에 있어서 윤리적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릴백

박사는 “복음의 핵심이 빠진 도덕적 설교를 주의하라”고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가장 강 령한 증거는 바로 설교자의 삶”이라고 권면했다.

많은 설교자들이 신,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교하지만 그 속에 강력한 윤리 가 들어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참 석한 260여 명의 목회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줬다.

현 대북·안보정책 계승 보장없이 대통령 이선후퇴 절대 반대!

모이자! <대통령 하야반대 및 국가안보 집회>로!

서울 : 11월 17일(목), 24일(목) 오후3시 서울역 앞

이제는 국민이 냉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동안 하야를 요구하는 민심이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고 우리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말할 수 없이 크지만 이제는 우리국민이 냉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동안 거리에서 종교생으로 하여금 혁명정부 수립을 외치게 하여 어 린 영혼을 타락시키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과도내각 총리를 여야협의로 결정기로 한 이상 수습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하 야하면 60일 내에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데 후보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선거가 졸속이 되고 공정한 경쟁도 안 되어 나라가 말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절대로 하야하면 안 됩니다. 내년 12월에 정상적으로 치기 대선이 이루어지도록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고 임기를 채우는 것은 대통령의 한낱책 책무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이 북한과 끝까지 맞서고, 국제사회가 북핵반대를 위한 경제제재를 계속하고 북한의 공포정치가 극에 달해 결국은 북한이 무너져 남한 주도의 통일을 이루느냐, 아니면 한국정부가 북핵 앞에서 북한에 굴종하다가 한미동맹도 깨지고 국가안보도 무너져 결 국은 적화(赤化)되느냐의 기로에서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은 ‘북핵 절대반대’ 세력과 ‘사실상의 북핵용인’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박 지원 의원은 대표적인 북핵용인 세력입니다. 그는 박근혜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권유하면서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북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북핵과 상관없이 남북이 상생(相生)하자는 제안으로 정확하게 북핵을 용인하자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국가안보가 위중하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북·안보정책은 조금도 변함없이 새 내각에 의해 계승되어야 합니다.

대북·안보정책의 계승없이 대통령은 절대로 이선후퇴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선진통일건국연합, 한국예비역기독군인회연합회,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엄마부대봉사단,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신의 한수, 자유청년연합, 통일한국당,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올바른교육시민연합, 학부모모임회 나라지키기119운동본부, 정의로운 시민행동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가을 산행기도회 및 연수교육세미나



일시 2016년 11월 28일(월) ~ 29일(화)
장소 가평순복음교회(담임:조남영 목사)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284-3
 ☎(031)582-2835
참가자 부흥사회 임·회원 부부동반(간편복장)
주관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2016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도시지역 미자립교회(성도수 20명 이하) 및 농·어촌, 산간벽지, 낙도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사오니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을 주시면 적극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알립니다!

1. 당일 낮 12시까지 모여서 예배 후 점심식사
2. 오후 2시에 산행기도회 장소로 이동 후 산행기도회 실시
 - ①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 ② 한국교회와 다음세대를 위하여
 - ③ 교단 발전과 정책위원장님을 위하여
 - ④ 총회장님과 임원들과 교단 교회들을 위하여
 - ⑤ 교단 부흥사회의 활성화와 부흥사로서의 자질향상과 역동적인 사역을 위하여
 - ⑥ WCC와 종교다원주의자들과 동성애해용 입법 추진자들의 활동저지를 위하여
3. 하산 후 저녁식사
4. 오후 7시부터 부흥사로서의 자질향상과 능력배양을 위한 연수세미나

5. 성령충만 기도회 및 임·회원간의 토의와 질의응답의 시간
6. 교제 및 레크레이션
7. 취침
8. 다음날 오전 7시에 아침예배 후 조식
9. 오전 9시 - 부흥사가 갖춰야 할 덕목 및 바른 사역을 위한 세미나
10. 오전 11시 - 부흥사들 간의 자유토론회
11. 낮 12시 점심식사 후 각 교회로 출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열정적인 부흥사로서 활동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연수세미나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회장 신재영 목사 HP: 010-4420-8650,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HP: 010-3698-57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혈몬산교회 부흥회 및 철야기도회

선교사 기도의 쉼터, 청소년사역 기도처

혈몬산수양관교회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교회 새성전에서 부흥회와 매주 금요철야기도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기도하며 쉬어갈 수 있도록 선교사 기도의 쉼터, 청소년 사역을 위한 기도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문제해결 받고 기도의 사람으로 무장을 원하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신정희 목사 초청 부흥회

- 강사: 신정희 목사
서울 초원교회 담임
세계무디부흥사회총재
국내외 부흥성회 3천여 회 인도
- 일시: 2016년 11월 28일(월)~12월 1일(목)
매일 새벽 5시30분,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장소 및 문의

혈몬산교회(담임 김남순 목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181번길 91-16
 (백곡리 산 113번지) 010)2415-2062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역 감당

백마고지 전투현장에서 국가와 민족위해 기도
연천 유황온천에서 심신 단련, 걷기동우회

교단 스포츠선교회(위원장 김순구 목사) 산하 걷기 동우회(회장 홍현철 목사) 회원들은 지난 11월 7일 (월)-8일(화) 양일간 연천순복음교회(담임 임영광 목사)에서 11월 모임을 갖고 심신을 단련하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했다.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회장 홍현철 목사의 사회로 최남성 목사의 기도, 교단 총회장 조남영 목사의 설

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빌3:13-16 말씀을 본문으로 '뜻대를 향하여 나가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표가 분명히 서있는 자는 낙심하지 않으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으며, 또한 강인한 힘이 있어야 요동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전하고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교단과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회원들

을 축복했다. 이어 제목기도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종북세력 척결을 위해', 정석현 목사가, 'WCC, 동성애, 종교다원주의 반대를 위해' 최형택 목사가, '교단 발전과 부흥을 위해' 황용연 목사가 각각 인도했으며 조남영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행사로 연천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한 뒤 연천지역의 백마고지 전투현장을 찾았다.

수십년 주인이 바뀌고 백전불굴의 투지로 결국 승리를 거둔 전략적 요충지 백마고지를 밟으며 홍현철 목사의 인도로 이 나라 지켜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마침 그 역사적 현장을 찾아온 옛 미국인 전우들과 가족들을 만나 함께 기념 촬영을 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회원들은 인근에 위치한 유황온천 호텔에서 일박을 한 뒤 유명한 동막골 계곡을 둘러본 뒤 2017년 3월 여수에서의 모임을 기약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6년 전국 여교역자국 송년예배

주제 :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 133:1)

♡ 모시는글

한해를 돌아보며 또 한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여교역자국 송년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모두 함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송년 예배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함이 기쁨이요, 능력입니다.”

여교역자국 올림 -

| 일 시 | 2016년 12월 12일(월) 오전 11시~오후 4시 30분

| 장 소 | 온선교회(담임 탁정신 목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691-5

| 대 상 | 전국 여교역자 전원

| 주 관 | 여교역자국

| 문 의 | 국장 탁정신 010-5313-3379

차장 김효신 010-3784-3731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교역자국

후원 : 총회·각 지방회



정혜원 목사
총무



조남영 목사
총회장



정부용 목사
고문



신동숙 목사
자문



탁정신 목사
국장

조직

임원단

차장	기획실장	행정부장	설외부장	경조부장	예배부장	홍보부장	행사부장	복지부장	사회부장	선교부장	봉사부장
손복음총신교회 김효신 목사	일산순복음교회 조영만 목사	후계교회 김찬애 목사	기광순복음교회 조영희 목사	회복의순복음교회 김순자 목사	순복음전통교회 김비율 목사	순복음전통교회 한순남 목사	예수순복음교회 최영희 목사	순복음성령교회 이경자 목사A	군열순복음교회 김종배 목사	순복음성령교회 조은주 목사	순복음기쁨의교회 이광순 목사

전국지부장

서울중부지방회 지부장 서광호 목사	서울강남지방회 지부장 이현옥 목사	서울중앙지방회 지부장 정예스 목사	서울남서지방회 지부장 신은순 목사	경기지방회 지부장 송남지 지부장	경기중앙지방회 지부장 송남지 지부장	경기남부지방회 지부장 송남지 지부장	안산시흥지방회 지부장 송남지 지부장	경기북부지방회 지부장 송남지 지부장	용인지방회 지부장 송남지 지부장	일산지방회 지부장 송남지 지부장	김포지방회 지부장 송남지 지부장
시흥과평화교회 송현자 목사	순복음시흥교회 이현옥 목사	예수한기교회 정예스 목사	반석교회 신은순 목사	온누리순복음교회 최경자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정순 목사	월남순복음교회 김남순 목사	민음교회 이경자 목사B	홍성현성령교회 서석자 목사	순복음성령교회 김인희 목사	순복음성령교회 실수자 목사	임마누엘교회 이정애 목사
강원동지방회 지부장 송남지 지부장	강원서지방회 지부장 송남지 지부장	대전지방회 지부장 송남지 지부장	충북지방회 지부장 송남지 지부장	충남지방회 지부장 송남지 지부장	충주지방회 지부장 송남지 지부장	경남지방회 지부장 송남지 지부장	영남동지방회 지부장 송남지 지부장	부산지방회 지부장 송남지 지부장	광주지방회 지부장 송남지 지부장	전북지방회 지부장 송남지 지부장	전북서지방회 지부장 송남지 지부장
성광교회 최정희 목사	바울기도원 정희자 목사	대흥순복음교회 안선자 목사	대성산기도원 임연임 목사	솔로몬순복음교회 권옥자 목사	행복한순복음교회 김문자 목사	홍성현성령교회 김영숙 목사	순복음성령교회 이순애 목사	순복음성령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성령교회 배영혜 목사	성령말씀교회 임성애 목사	임마누엘수영교회 심혜원 목사
전라지방회 지부장 송남지 지부장	호남지방회 지부장 송남지 지부장	은진지방회 지부장 송남지 지부장	북동순복음교회 백영자 목사	순복음성령교회 정복애 목사	온혜평리교회 심연숙 전도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 여교역자국

국장 탁정신 목사

한교연 여성위, 김장담그기 행사

노숙인 쪽방촌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가 최순실 사태로 온 나라가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한교연 여성위원회(위원장 권복주 장로)는 지난 11월 1일(화) 오전 9시 서울역광장에서 2016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갖고 7톤의 김장김치를 노숙인, 쪽방촌, 독거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5개처에 골고루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여성위원장 권복주 장로의 사회로 허해숙 권사(직전위원장)의 기도, 강수가 집사의 특송, 증경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마 26:40)라는 제목의 설교로 진행되었으며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의 인사와 김원일 목사(서울여신학교)의 축사, 박위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박위근 목사는 설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햇살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온기를 선물하듯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마땅한 바"라고 강조했다.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는 "한교연은 사회적 약자



를 위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한국교회에 본이 되고 사회 곳곳 그늘진 곳을 밝게 비추는 일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여신학교의 해돋는 마을 대표 김원일 목사는 축사에서 "한교연의 오늘 김장 봉사가 큰 위로가 도움이 된다"고 감사를 표하고 "오늘 여러분이 담긴 사랑의 김장김치를 서울여 인근 쪽방촌과 독거노인들

에게 골고루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교연은 이날 담근 김장김치 700 박스(10킬로그램)를 노숙인 지원센터 서울역광장 해돋는 마을(김원일 목사), 꿈나무 미혼모센터(원장 박미자), 새생명대국인교회(홍광표 선교사), 탈북청소년대안학교 하늘꿈학교(교장 임항자 목사), 청소년가정보호 선상공공체(김연수) 등 복지시설에 각각 전달했다.

창조신앙 회복과 창조과학 발전 주력

한국창조과학회 7대 회장에 한윤봉 교수 선출

한국창조과학회는 지난 11월 5일(토) 원전교회(서대문구 연희동 소재)에서 201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7대 회장으로 한윤봉 교수(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사진 중앙)를 선출하였다.

신임 한윤봉 회장은 창조과학자로 오랜 기간 헌신하여 왔으며, 2009년부터 창조신앙 회복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청소년과 어린이 창조과학 비전캠프'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본회 부회장으로 섬겨왔다.

또한 신임 한윤봉 회장은 과학자로서 탁월한 업적을 인정받아 2011년 7월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여하는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을 수상하였고,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BK21 플러스 미래에너지소재소재사업단 단장으로서 미래에너지 분야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2016년 7월에는 'ASK 공부법'을 출판하여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학습법과 교육법을 제시하였다.

한윤봉 회장은 해외에서도 우수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2016년 4월에 미국세라믹학회(ACerS)에서 세라믹 소재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와 국제협력을 통해서 첨단 기술 개발과 학회 발전에 기여한 학자에게 수여하는 'ACerS Global Ambassador' 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6년 10월에 화학분야 최우수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LOGNOR사의 2016 'Rudolph A. Marcus' 상을 수상하였으며, 2015년에는 영국 국제인명센터(IBC)에 의해 '세계 100대 과학자'에 선정됨으로써 총 4번(2005, 2011, 2014, 2015)에 걸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최근에는 차세대 태양전지로 각광받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Peroovskite) 태양전지와 유기태양전지의 광전류 밀도와 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나노복합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결과를 세계적인 학술지 『Nano Energy』(Impact Factor=11.553) 2016년 9월호와 10월호에 2편의 논문이 연달아 게재되어 세계 학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본회는 한윤봉 신임회장이 탁월한 리더십과 과학적 전문성, 그리고 신실한 영성의 결합으로 시대에 맡겨진 창조과학회 역할을 잘 수행하여 창조신앙 회복과 한국 창조과학회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선출 확정 후 한윤봉 신임 회장은 이 시대에 무너져 가고 있는 성벽인 창조신앙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바로 세워 나가는데 미력하나마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임회장의 임기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섬기게 되며 취임예배는 2017년 1월 6일 드릴 예정이다.

이은일 창조과학회 현 회장은 "새롭게 세움 받은 한윤봉 회장과 이어질 리더십 인선을 통해 교계의 필요를 채우며 창조신앙 회복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진화론과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한국교회를 지키는 청빙의 역할을 감당해 기길 소망한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한윤봉 신임회장의 이력은 다음과 같다.

- 한윤봉 교수
-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 전주식탁진구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공대 6호관
- 출석 교회 및 직분
- 배림교회(전북 진안읍 소재) 장로

2016 NGO자원봉사박람회 및 공익바자회

월드뷰티핸즈, 독거노인 장수사진촬영 봉사

서울시 마포구청(청장 박홍섭)이 주최한 '2016 NGO 자원봉사박람회 및 공익바자회'가 11월 4일 오전 11시 마포구청 어울림 마당에서 약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국제뷰티구호개발 NGO 씨월드뷰티핸즈(WBH 이사장 장현일)는 독거노인 및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을 위한 헤어미용, 메이크업, 네일 등 뷰티서비스를 실시하여 본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 담을 수 있도록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사)월드뷰티핸즈 회장(최예스터 신한대학교 뷰티헬스사이언스학과 교수)과 신지안, 김경인, 김연미, 이명미 등의 뷰티전문가와 조현주, 윤성재, 김성민, 최원희 등 뷰티 자원봉사 대표들이 참여하였다.

(사)월드뷰티핸즈는 서울여 노숙자와 쪽방촌 독거노인, 한 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뷰티서비스 활동과 다문화 가족, 북한동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뷰티 기술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베트남을 중심으로 아시아, 아프리카를 포함한 저개발국 주민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확대시켜 진행하고 있다. 한편 (사)월드뷰티핸즈는 K-뷰티 헤어미용, 메이크업, 피부미용, 네일, 화장품 등 5대 분야의 전문 교수와 뷰티기관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 1365 자원봉사 인증기관으로써 뷰티자원봉사자 신청을 받고 있다. (문의 02-706-5333)



월드비전, 후원감사의 밤 '패밀리데이' 개최

자립에 성공한 해외 후원아동과 후원자의 깜짝 만남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은 지난 11월 4일,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홍보대사들을 초청하여 다같이 나눔의 기쁨을 공유하고 후원자로서 유대를 다지는 후원감사의 밤 '2016 월드비전 패밀리데이'를 개최했다.

올해는 베트남 호아랑 사업장과 방글라데시 쉐더번 사업장의 자립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 마을이 자립했어요'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아동을 후원했던 후원자들을 포함하여 월드비전을 통해 해외아동을 후원하고 있는 후원자 400여 명

이 참여했다.

후원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또 월드비전과 나눔에 동참하고 있는 친선·홍보대사들이 재능나눔으로 참여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바울부흥선교협 10월 조찬기도회

국난극복 위해 기도, 협의회 사업 및 신년하례예배 확정

세계바울선교협의회(대표회장 심재선 목사)는 지난 10월 29일 오전 7시 30분 올리픽파크텔에서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조찬기도회 1부 예배는 상임회장 황준익 목사



사회로 노병훈 목사의 기도, 황준익 목사의 성경봉독, 심재선 목사의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이다'라는 요지의 설교, 조지현 목사의 성사남송, 김중석 목사의 광고, 문원순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조찬기도회 및 실행위원회는 심재선 목사의 사회로 이승진 목사의 개회기도 후 기태엽 목사가 '교회 부흥과 세계선교', 김중석 목사가 '국정쇄신과 국난극복을 위하여' 특별기도를 한 후 참석자 모두가 '한반도 평화와 북핵 저지를 위하여' 합심기도를 했다.

동 협의회는 이날 실행위원회를 통해 협의회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발전책을 수립하는 한편 선교협 주최 제2차 구국기도회는 11월 25일 오후 3시 새물결신학교회(강봉규 목사), 제3차는 2017년 신년하례예배를 겸해서 울산 종로 다사랑홀에서 드리기로 했다.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7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년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 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유인원의 인류 진화설은 허구이다’ 주제로 교과서 진화론 개정 청원서 교육부에 제출

(사)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



(사)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교진추, 회장 이광원)는 2016년 11월 7일(월) 고등학교 「과학」 및 「생명과학 II」 교과서의 ‘인류 진화’ 기술 영역에 현대 과학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오류 부분에 대하여 ‘유인원의 인류 진화설은 허구이다’라는 주제의 교과서 진화론 개정 청원서를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제출하였다.

본 청원은 대학교수(이공) 79명, 중등교사(과학) 72명, 초등교사 66명 등 207명으로 구성된 (사)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 청원위원회 이름으로 제출되었다.

인류 진화 내용에 있어서 진화 계통수 상에 나타나야 할 공통조상으로 불리는 중간종 화석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인류 진화 계열의 여러 호모족들이 같은 시기에 공존했다는 사실과, 수백만 년 이전 지층에서 현대인의 유골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중간조상으로 불리는 것들의 두개골의 크기가 오히려 현대인의 것보다 커 진화의 역전 현상이 발견되고 있고, 여러 가지 두개골이 한 계열의 것으로 조립된 사실이 확인 되었으며, 돌연변이로는 새로운 유전정보를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 진화를 의미하는 새로운 종을 낳게 하는 진화는 일어날 수도 없다는 사실과, 그리고 소위 쓰레기 유전자(Junk DNA)로 불렸던 것들이 생형현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발견 등이 주된 청원의 이유이다.

진화론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1859) 발표와 함께 세계인들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는 그로부터 25년 후인 1884년 대한제국시절 한성순보보를 통해 ‘순화설’로 처음 소개되었다. 우리는 동물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짓된 사상을 이때부터 가르치고 배우기 시작한 셈이다.

국내 고등학교 「과학」 및 「생명과학 II」 교과서가 기술하고 있는 인류 진화에 대한 내용은 앞서 보았듯이 많은 오류를 담고 있다. 심지어 이미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내용까지 여전히 가르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기성세대가 인류 진화의 증거라고 배웠던 내용들 중 상당수는 오류로 드러나 교과서에서 삭제되었다. 남아 있는 내용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고,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청원사업과 더불어 교과서의 오류들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도서들도 출판하고 있다. 더불어 그것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도록 세미나 등의 시정강의를 통해서 수시로 전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더욱 더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홈페이지(<http://strcr.kr>)와 블로그(http://blog.naver.com/str_bg)를 통해서 입체적인 진화론 교육에 강화해 가고 있다.

가족세트전도 참가기

가족세트전도 현장훈련을 받으며

나는 대학 시절 선교단체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삶이 가장 가치있음을 알게 되어 많은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하였다.

새로운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늦게 신학을 하고 개척교회 전도사가 되어 교회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전도법들을 시도하고 또 시도해 보았다.

더 효과적인 전도를 배우고자 전도폭발 임상까지 훈련 받아 지도자 자격증도 뒀다. 그런데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그 전도법들을 소개하고 전하는데 많은 시간을 요구해서 좀 뜸다가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 힘이 빠졌다. 노력한 만큼 전도의 열매가 없고 거절당하는 상처들이 쌓이면서 전도는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으로 도전하는 것조차 꺼릴지 무렵 하나님께서는 돕는 천사 박영수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

나는 앞으로 교회 개척을 앞두고 있고, 현재는 구리에 있는 은혜로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다. 박영수 목사님이 소개하는 가족세트전도는 속전속결의 능력전도이다. 이 전도법은 단지 방법론적인 강의에서 끝나지 않고, 직접 함께 전도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배우고 경험하도록 가르친다.

박영수 목사님을 따라 전도현장에 나간 첫날부터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다.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박사는 52주 1년간 300회 이상 전도집회 현장에 나가며 3전명 이상을 현장에서 전도했다. 박 목사님은 아주 빠르게 강령한 눈빛으로 전도대상자를 딱 붙잡고, 상대방에게 1분 동안 나를 따라 고백하시면 구원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선포하였다.

전도대상자는 박영수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기도를 순

순히 따라 하는 것이었다. 목사님은 나아가 전도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번호, 가족관계 등 전도대상자의 정보들을 쪽쪽 숨길 새도 주지 않고 1, 2분 정도에 다 물어서 답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 특히 가족세트전도법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 거리에 오토바이 타고 급하게 배달하는 사람, 시장장인 음식점 누구나 무차별, 전도현장 어디든지 사람이면 모두 가능하다.

우리 교회가 있는 건물 1층에 있는 음식점에 점심 먹으러 들어갔다. 박 목사님의 영혼에 대한 사랑 열정을 배울 수 있었다. 먼저 사장님 앞에 가셨다. 목사님은 칭찬하는 말과 함께 동시에 안수하고 영접기도를 시킨다. 평소 과묵하게 보였던 사장님이 어린이가 같이 따라한다. 가족신상을 진심하게 말한다. 가족 중 아들이 5살 먹었단니까, 우리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마다 대학 들어갈 때까지 기도해주며 축복해주신다니 사장님 얼굴이 환해진다. 교배까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전체 사진촬영까지 했다.

현장에서 박영수 목사님과 다니며 실제로 전도하며 불신자가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 고백하고 자신의 정보들을 알려주면서 관계를 맺는 수많은 경험은 그동안 전도에 대한 패배감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나는 부족하지만 순종하여 전도할때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기도드린다.

은혜로교회 박사라 전도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o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2017년 사역의 경쟁력은 ‘문화목회’-미래목회포럼

“2017년 사역의 경쟁력은 ‘문화’입니다” 미래목회포럼 대표 이상대는 ‘문화목회, 미래교회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2017년 새해 기획목회사역설명회 개최하며 포럼 대표 이상대 목사가 인사한 말이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목회비전, 어떻게 세우고, 교회문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문화목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200여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처럼 2017년 목회에 화두가 되는 키워드는 역시 ‘문화’이다.

이날 ‘세상과 소통하는 동네교회 이야기’를 발표하며 첫 강의에 나선 조주희 목사(성암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과 마을 공동체를 일구는 사역이 어떻게 연결되고 서로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역에서 목회자 역할도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설교하고 목양하고 교육하는 역할, 마을 사역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추진하는 역할, 이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배우고 도우는 문화의 장으로 교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의 불모지였던 작은 시골마을에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기적을 만들어낸 한 교회, 약 30년 전 김포에 문을 연 ‘고촌김리교회’가 바로 그곳이다. 김포지역 특성상 대부분 공단에서 일하는 맞벌이 가정이 많아 집에 반치되다시피 있었던 아이들, 고촌교회 2대 담임으로 부임한 박정훈 목사는 이 아이들



을 불러 모아 약기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작고 구석진 마을에서 자리더라도 꿈을 갖고 실력을 갖추면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믿었기 때문이다. 변변한 음악학원 하나 없던 시골에서 바이올린과 첼로를 연주하는 청소년들이 하나 둘 늘면서 지역문화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결국 ‘김포 체임버 오케스트라’가 탄생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

“2007년 모든 음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카네기홀에서의 공연까지 성황리에 마치고 지난 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선정한 ‘꿈의 학교’로 선정돼 현재 4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고촌교회 ‘꿈의 관현악 학교’를 통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발제에 이어 현장 실례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최근 몇 년동안 현장에서 일했던 실제사례들을 소개하고 함께 토론하며 적용가능하도록 이우열 목사(요양

행복한제자교회)가 ‘행복한 책마을 작은 도서관’, 김영진 목사(보령 시온교회)가 ‘농촌 살리는 마을공동체, 축제가 있는 교회’, 최혁기 목사(일산 새로운교회)가 ‘북카페교회, 어렵지 않아요’를 각각 발표했다.

새해목회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의 관심에 ‘문화목회’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일부 교회들에서만 문화목회가 활성화돼 있으며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는 상태로 문화목회를 하고자 해도 방법을 모르거나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교육원장 김대동 목사(분당구미교회)는 “문화의 시대를 맞아 목회 비전을 어떻게 세우고 교회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미래를 만드는 일에 답을 만들어 가는 장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감동휴먼 다큐멘터리 ‘제자도’ 11월 10일 개봉

故 옥한흠 목사가 남긴 이야기, 그리고 ‘제자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동 휴먼 다큐멘터리 <제자 옥한흠 2 - 제자도>[제작/배급: 파이오니아21] 감독: 김상철]가 교계에 반향을 예고하는 가운데 전국 80여 개 상영관에서 개봉하며 관객들의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이 시대에 필요한 진짜 ‘제자도’의 본질에 대해 전하는 다큐멘터리 <제자 옥한흠 2-제자도>가 교계 지도자들과 언론의 뜨거운 추천 열

풍 속 단체관람 문의가 쇄도하는 가운데, 전국 상영관 리스트를 전격 공개했다.

교회 속에 언론 시사화와 VIP 사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한국교회 전반에 성찰과 회개의 물결을 불러일으킬 <제자 옥한흠 2-제자도>는 언론과 관객들의 호평에 이어 교계에서도 “전편보다 상당히 폭넓고 입체적인 서술이 인상적인 영화” (박정관 목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함을 영화를 통해 보았습니다” (이윤호 목사) 등 추천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전국 각지의 교회로부터 상영관 문의 및 단

체관람, 대관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2014년 <제자 옥한흠>에 이어 또 한 번 전진한 흥행 바람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

목회자들과 평신도들 모두에게 진정한 감동과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 <제자 옥한흠 2-제자도>는 개봉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교계 안팎의 높은 관심을 이어 나갈 전망이다.

이 시대에 필요한 진짜 ‘제자도’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진실된 메시지! <제자 옥한흠 2-제자도>는 11월 10일 개봉됐다.

2016학년도 총회목회대학원 하반기 계절학기 개설 안내

- 일 시 : 2016년 12월 5일(월) ~ 9일(금) 4박 5일
- 장 소 : 본 대학원 301호 강의실
- 강 사 : 본 대학원 원장 임종달 목사 외 4명
- 등록 마감 : 2016년 11월 28일(월) 17:00
- 기 타 : 재학생은 무료, 미 취득 학점이 있을 시 학점 대체함
- 문 의 : 02)2677-0692(본 대학원 행정실)
- 선교 헌금 : 1,000,000원(숙식은 각자 해결해야함)
- 선교 헌금 입금계좌 : 농협 302-0928-2133-91 임종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원장 목사 임종달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안내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는 결혼 적령기 크리스천 미혼 남자가 주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 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감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에 신청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 및 개인 정보는 담당자만 볼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의 비용도 없습니다. 본교회 성도는 물론 본교단 산하 교회 성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 상 : 결혼 적령기 남녀 성도
- 신 형 : ㉠ 센터(안양성전 행복한결혼정보센터)에 직접 신청
㉡ 각 성전 교구장 통해 신청
㉢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www.gntc.net)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담시간 : 매주 주일 오전 11시~오후 6시
매주 수요일 낮 12시~오후 6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 사무실 031-422-3735, 상담소장 010-4377-2842)



이단사교 배격, 성경대로의 신앙 전파 다짐

한국교회의 정체성 회복하는데 힘을 기울인다
(사)예장연 제18회 정총 대표회장에게 이광용 목사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

이 침투한 종교다원주의와 사교 등을 배격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경대로의 신앙을 전파하는 보수단체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연합기관이 될 것을 다짐했다.

총회에 앞서 드린 이날 예배는 상임회장 장승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여목회 수석 부회장 임은선 목사의 대표기도, 지도위원 이후현 목사의 성경봉독, 성가대의 찬양, 부회계 김미리 목사의 색소폰연주, 고분 예영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예목사는 마 4:23-25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과 표적과 하나님 나라 확장'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말씀선포가 있는 곳에 표적이 따르며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고 전하고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렵고 힘

들 때 더욱 열심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임마누엘 신앙으로 따르는 표적을 나타내 보임으로 더욱 크게 쓰임 받는 회원 교단이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상임회장 이광용 목사의 축사, 상임회장 이성현 목사와 예장연합장신 총회장 송기호 목사의 격려사, 고분 김기형 목사와 설교장 기도위원장 유영식 목사의 축사, 특별기도로 '국가와 통일을 위해', '한국 지도자들과 대통령을 위해', '사회 문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 '한국교회이단과 WCC폐망을 위해', '(사)예장연 정체성과 종교개혁 500주년을 위해' 서재복 목사, 차득환 목사, 한순우 목사, 조요한 목사, 정태미 목사, 하석수 목사가 각각 주제별기도를 인도했다.

창4동 어린이집 교사일동의 헌금찬양, 회계 오선미 목사의 헌금기도,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의 인사말씀, 감사패증정 상임회장 이강익 목사의 축도 순으로 개회예배의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모두 마쳤다.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나라와 민족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왔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예장연은 앞으로 교회학교

집중육성,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말씀을 시수하는 일, 성령충만 회복, 하나님의 말씀 회복 등을 기본 방침으로 논문집과 설교집을 발간하고 포럼과 기도회를 개최하고 오순절 성령의 바람으로 한국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힘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곧바로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 주재로 총회에 들어가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대표회장에게 이광용 목사를 재선임하는 등 선임위원을 선출했다.

신임위원에 의해 새 회기년도에 이루어 갈 사업계획안은 논문집과 설교집 발간, 포럼 및 기도회 개최 등의 주요사업들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번 회기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고분 김원식 목사, 육옥수 목사, 김기형 목사, 예영수 목사, 송현 목사, 이원일 목사, 김광본 목사, 서재복 목사, 김태정 목사,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 상임회장 이성현 목사, 이강익 목사, 외인 지분위원 이태주 목사, 조요한 목사, 외인 지도위원 김용현 목사, 외인 11인 총무 이명승 목사, 김광재 목사, 외인 6인 서기 손대영 목사, 회계 오선미 목사, 감사 김태지 목사, 정태미 목사



간 기능 개선 홍삼에너지드링크 '엘크로'

자연의 선물 6년근 고려인삼을 홍삼음료로
타우린·비타민·벌꿀이 어우러져 최고의 건강 에너지드링크

최근 드링크 시장에 강장음료라 불리는 '고카페인 에너지드링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 카페인 성분이 지나치게 많아 오히려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음료조차 안심하고 마실 수 없는 상황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리하신 자연에서 정성만 더해진 홍삼을 음료로 만들어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고 인체에 큰 도움을 주는 홍삼에너지드링크가 출시되어 음료업계에 경쟁적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내 대표적 에너지드링크 음료인 레드불에서 심박동수 증가, 복부 통증 21건의 부작용이 보고되었으며, 유사 에너지드링크 제품의 경우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음용에 주의가 당부된다고 발표했다.

의료계에서는 고카페인 음료가 중독성, 약 2시간 후에 몰려오는 급격한 피로감, 청소년 성장 저해와 장기적 신체기능 저하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피로감 개선을 위해 마신 고카페인 에너지드링크가 자칫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코리아파나스진생이 선보인 엘크로는 지사의 대표제품 홍삼농축액 '진홍삼정(眞紅蔘精)'에 타우린·비타민·벌꿀 등을 혼합한 웰스 에너지드링크이다. 진홍삼정은 청정한 땅에서 재배한 6년근 고려인삼으로 만든 홍삼을 추출, 높은 순도와 다양한 효능을 지닌 유효성분의 진액만을 숙성시켜 만든 명품 홍삼농축액이다.

엘크로 1캔(250ml)에는 사포닌(saponin) 성분 진세노사이드(Ginseno



(주)코리아파나스진생 CEO 박상춘 집사

side Rg1+Rb1+Rg3 = 26.21mg/g인 고농축 진홍삼정 1,200mg이 함유되어 있다. 사포닌의 주요성분 분류 가운데 파나사 트리올(Panax Triol)계에 속하는 Rg1은 중추흥분작용, 항스트레스작용, 항피로작용, 피로해소 촉진, 면역력 증진, 학습기억력 증진작용을 한다. 파나사 디올(Panax Diol)계인 Rb1은 중추신경억제, 최면작용, 진통작용, 정신안정작용 해열, 혈당단백 합성촉진작용, 중성지방 분해억제, 합성촉진(인슐린유사), 콜레스테롤 생합성 촉진, RNA합성 촉진, 부신피질호르몬분비 촉진, 학습기억력 개선, 섬식억제, 플라스민(탄백질 분해효소) 활성화작용을 한다. 파나사디올(Panax Diol)계인 Rg3은 혈소관응집억제, 암 전이억제, 항암, 항암제내성억제, 혈행개선, 혈당강화, 면역력 강화작용을 한다고 밝혀진 바 있어 우수한 약리효과를 기대해볼 만하다.

엘크로 다이어트 30' 프로젝트

천연 홍삼진액과 타우린·비타민·벌꿀 등이 혼합된 엘크로만의 독특한 레시피는 고카페인 에너지드링크의 강점인 순간 회복력'은 물론, 누적된 만성피로

를 해소해주는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특히 예방의학 측면에서 면역력 증진, 누적 피로 개선 및 혈소관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 개선, 기억력 개선 및 항산화에 효과적인 성분이 함유되어 피로에 지친 학생과 직장인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또 간 기능 개선이라는 홍삼 고유의 효능을 잘 활용하신 제품이므로 졸음 운전이 우려되는 장거리 운전기사나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파일럿, 스포츠맨 등 피로도가 높은 직업 종사자들에게 그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엘크로는 코리아파나스진생의 박상춘 대표와 강간구 약학박사, 연구팀이 10여 년 연구개발 끝에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건강 에너지음료 시장을 석권하고자 아낌없이 출시한 토종 브랜드이다.

엘크로(ELCRO)의 '엘(EL)'은 히브리어로 '유일한 창조주'란 뜻으로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의 의미를 지녔으며, 이곳을 가기 위한 통로를 의미하는 영어의 'Cross'를 더하여 '세상에서 유일한 명품 고농축 홍삼 에너지드링크'를 표방한다.

현재 엘크로는 일본, 동남아 등지에서 약 100만 캔이 주문되다가 들어오는 등 해외에서 그 효능이 먼저 알려져 국내 시장에서 소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코리아파나스진생의 박상춘 대표는 "엘크로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마시기 편하고 휴대하기 간편한 고농축 홍삼 캔 음료로서, 사람의 육체와 정신 건강에 감동을 주는 특별한 가치가 있다"며, "피로해소와 두뇌활성화, 활력증진 등 세계 최고의 웰스 에너지드링크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단공과 신청

출판현금

- ① 유치부학생용, 유년부학생용, 초등부학생용, 아동부교사용(유치·유년·초등부 합본) : 5,000원
- ② 중·고등부 공과 : 2,000원
- ③ 아동부 설교파워포인트 USB : 10,000원
- ④ 성인구역공과 : 5,000원

특징(교회학교 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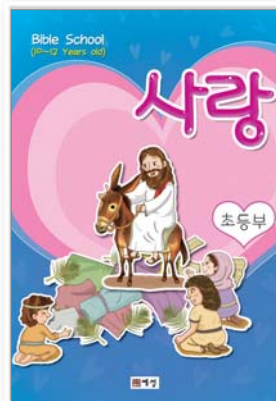
- ① 설교와 공과가 연계되어 있음
- ② 공과는 성경이야기와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③ 영어가 삽입되어 영어권에서도 사용 가능함

공과신청

- ① Fax : 031)223-1793, 02)2677-5181
- ② e-mail : hello-pastor@hanmail.net
- ③ 입금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79779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④ 신청마감 : 2016년 12월 8일(목)까지 신청과 함께 입금된 수량만 인쇄합니다

문의

전화 : 031)233-2922, 02)2675-5181~3



초대시

정문석 집사

추수 감사절 연가



이제 바야흐로
북한강 찬바람이 불고
별살이 작아지는 먼 들녘에
들국화 은행잎이 마지막 화장하는
늦가을 추수 감사절이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일찍부터 찌는 듯 무더운 것이
참으로 잔인한 폭거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겨운 장마가 와도
홍수 난리가 나도
우리는 당신의 위대한 배령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 많은 양식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저 많은 곡물과 과일과 채소를 만들어
악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보살핌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희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 동안 추수를 하기 위하여
밤낮없이 바빴습니다
눈물 없이는 밤을 지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거둔 곡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치오니
모래알만한 것일지라도 받아 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이는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받아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런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오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며
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정문석 시인 프로필

· 1988년 전남 강진 출생
· 강진농고, 서라벌 예대 문예창작과 수학
· YMCA 주최 고등부 백일장 석류 시장원
· 고등학교 시절 시집『요람, 발간
· 시집『사랑하는 사람들, 발간

· 월간『한국시』에서 무지개 농장 외 2편 당선
· 대한교과서(주) 위원
· 도서출판 한양 대표
· 가평순복음교회 집사

손양원 목사, 문준경 전도사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CTS 기도원정대

‘조선의 작은 예수’, ‘사랑의 원자탄’, ‘한센인의 아버지’, 이는 모두 두 아이들을 죽인 원수를 응서 하고 양자로 삼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산돌 손양원 목사(1902~1960)를 지칭하는 별칭이다.

손 목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평양 장로회신학교를 마치고 한센병환자들 수용소인 전남 여수 애양원에 부임해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은 한센병환자의 상처에서 입으로 피고름을 빨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1940년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한 죄로 투옥돼 광복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 6·25전쟁 중에 피난을 가야 한다는 주위의 간곡한 권유를 뿌리치고 한센인을 버리지 않고 교회를 끝까지 지키다 공산당에 의해 총살당하면서 신앙인으로 순교자의 길을 걸었다. 그는 1995년 독립유공자로 선정돼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상했다.

손 목사의 순교를 기리기 위한 순교기념관은 애



양원과 역사박물관이 위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신평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대한민국기도원정대 200여 명의 대원들은 손양원 목사 기념관 앞에서 일제의 핍박 속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신앙을 지켰던 그 마음을 생각하며 “한국교회의 부흥과 이 땅의 복음전파”, “분단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이번 기도원정대 특별 강사로 초청된 정영교 목사(양분교회)는 “한국전쟁 66주년을 맞아, 분단된 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자각하고 한국교

회와 성도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새롭게 결단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참석자들은 정 목사의 말에 “아멘, 할렐루야”로 답했다.

현 정세와 시국에 대한 기도도 이어졌다. ‘사회적 갈등과 분열’, ‘국가 위기 극복’, ‘동성애 문제와 이슬람 침투’에 대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지혜롭게 이 어려운 고비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화해하고 성경과 성령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했다.

사설

나라가 위태하다, 구국기도로 하나 되자!

오늘의 국가적 대 혼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삼기 해야 할 최우선 주님의 명령과 당부는 바로 ‘하나 되라’(요 17:11,21,22)는 주님의 간곡하신 기도 속에 있다. 시국을 보는 관점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시국을 해결하는 해법에 관한 의견도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의지한다면, 이처럼 위급한 혼란지경에 이른 국민과 나라의 운명을 개척해가야 할 지혜들과 방책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먼저 성경 말씀·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뜻과 힘을 모으고, 주님이시면 어떻게 하였을가를 묵상하면 나올 지혜들이요 해결책들이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주님은 말씀하신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입헌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에 아래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그 한 말씀이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오늘의 이 국가적 혼란 상태 속에서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바라고 호소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인가?

첫째로 대한민국은 입헌 자유민주 국가이다. 모든 범죄와 비리와 사회적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주권자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든 국법질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어떠한 폭력과 기만과 정략적 술책과 사회혼란 세력의 계략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 이튼바 야권의 대권 주자, 또는 당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무책임한 선동을 감행하고 있다. 합법적 헌법 절차와 국민주권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에 대해, 범죄 사실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국가 수사기관의 조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몰래나라’고 겁박하며 시위에 앞장서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국법을 짓밟는 위헌적 언동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 숨김없이 조사를 받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속행하고 있다. 대통령이 숨겨 두었던 한 여인과 그 숨은 배후 세력들의 부패·부정·비리들도 검찰의 수사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으며, 법의 절차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여론 조사에 의하면 적어도 반수의 국민들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수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도

처벌 될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에 대해 실망한 국민들이 거리거리로 몰려나와 분노를 터트리자 이에 편승하여, ‘대통령 하야’를 몰아붙이는 언행들은, 그 자체가 먼저 국법 유린이요 범법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언론의 무차별 의혹성 보도들이 결코 법률적 확증은 될 수 없음을, 말없는 다수 국민들은 알고 있다.

대한민국은 안정 속에 번영해야만 한다. 세계 선진 20대국이라는 이튼바 ‘G20’의 국위를 절대로 상실해서는 안 된다. 핵무기와 미사일로 언제든지 남한을 “불바다”의 처참한 폐허로 만들 수 있는 북핵 폭압자 김정일의 도발이 압박해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산업의 발전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상호방위 체제 아래서 가능하다. 만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잠시라도 유고 상태가 된다면, 과연 어떠한 국방 하점이 발생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박 대통령이 여러 허물과 과오와 범법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자리를 물러나든 탄핵소추를 당하든, 모든 절차는 적법 절차에 따라 한 치의 헌법질서 교란이 없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땅의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다. “주여, 나라의 국법을 지키고 나라의 안전을 바라는 소원이 주 안에서, 먼저 성도들 간에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고 저 다윗왕의 기도를 다시 되살려 주님께 드려야 한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우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며 지체하지 마소서.”(시 40:13-17)

광화문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거기에는 좌익·종북 불순분자들의 획책도 섞여 있다. 지금은 창조주 하나님께, 예수님의 제 되어된 최후 기도처럼, “이 나라를 불손한 세력의 꾀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를 이어가야 할 때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집고문 : 정채위원장 조옥목 목사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빌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ACADEMY

목회자 세미나 기획안

각 교단의 교세확장을 위한 세 불리기 목회자 양성은 영성과 인성, 영적 진단과 처방 등 목회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신앙적 인격을 갖추지 못한 채 목회현장으로 내몰리며, 목회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계도 유지 못하는 난항에 이른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기성 지도자들의 교회 내 각종 금융 비리와 절제되지 못한 사생활문제는 교회 문제를 떠나 사회의 지탄을 받으며 개신교의 위기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새롭게 출발하는 목회 초년생들과 이제 겨우 어려운 고비를 넘긴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땅 끝까지 복음전파라는 목회자의 사명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주의 종들이 늘어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며, 기성 목회자들의 자성과 회개, 그리고 뚜렷한 목회관 없이 성공목회라는 세상과 야합한 신기루를 염원하며 목적 없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목회자들에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참 목회자상과 신앙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함으로 그들의 목회에 힘과 용기를 주고자 장교 끝에 다메섹순복음교회에서 목양신문사와 공동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한다.

참 목회자 상과 목회자들의 새로운 이정표

1. 그리스도의 계시:아포칼립스
마 13:35 천국은 창세 전에 사람들에게 감춰져있어, 천국이 드러나도록 비유를 잘 해석해야 천국이 발견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은 감춰진 채로 남게 되고 깨닫는 자에게는 천국이 너희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감춰진 만나,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3.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속히 될 일을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의 종, 요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곧 감춰진 그리스도입니다. 재림은 공간이동이 아니라 육적차원에서 영적차원의 것으로 영의 눈이 열려야만 이를 깨닫고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4.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양모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5. 우리 인격 속에 하나님의 지혜, 능력, 실력, 마음됨됨이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6. 독생자의 영광의 핵심은 우리 인격과 능력과 실력이 완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7. 성경전체요약 강의: 창세기-계시록까지



개강 2016년 12월 8일(목)

- 시간 :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30분
- 대상 : 광주를 중심으로 성남, 용인, 군자암, 수원, 하남, 이천, 여주에 교회를 두고 있는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를 중심으로 우선 시작한다.
- 강사 : 강사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귀감이 되며 덕망을 갖춘 본 교단 목회자 또는 교수 중에서 선임하되 점차 초교파적으로 확대한다.
- 홍보 : 목양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한다.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30-40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 연락처 : 031-765-2791, 010-6202-631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7학년도 총회신학교·목대원 졸업예배

(총회신학교 제6회, 총회목회대학원 제9회)



2016학년도 졸업식 광경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총회신학교·목대원 학사일정에 따라 2017학년도 졸업식을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리
오니 함께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앞날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16년 12월 19일(월) 오후 2시
- 장 소: 총회본부 5층 대성전
- 참석대상: 총회신학교, 총회목회대학원 졸업 대상자
- 참 고: 1) 졸업 대상자는 졸업식 당일 오전 9시까지 도착(예행 연습)
2) 졸업가운 수령은 졸업식 당일 안내를 드릴 예정이오니
시간 엄수하시어 도착바랍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회신학교·목회대학원

● 주소: 07205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22나길 8 ● 전화: 02) 2677-0692 ● FAX: 02) 711-9958 ● 홈페이지: www.agtc.or.kr

홈페이지: www.agpgs.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7학년도 제1학기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
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 연 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4학기 (2년)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원서교부	2016년 12월 5일(월) ~ 2017년 2월 10일(금)
원서교부처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원서접수	2017년 2월 6일(월) ~ 2017년 2월 17일(금)
면접시험	2017년 2월 20일(월) 오후 1:00
합격자발표	개별통보
합격자 등록 기간	개별통보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전형료	50,000원
계좌번호	농협 (예금주: 임종달) 302-0928-2133-91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
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접수된 서류에 허위나 발견되면 합격을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 대학원 홈페이지(www.agpgs.or.kr) 자료실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2017년 2월6일(월)~2017년 2월17일(금)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홈페이지: www.agtc.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7학년도 제1학기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목적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 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
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
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증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 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 2016년 12월 5일(월)~2017년 2월 10일(금)
- ② 원서접수 : 2017년 2월 6일(월)~2017년 2월 17일(금)
- ③ 면접시험 : 2017년 2월 20일(월) 오후 1시
- ④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 (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2017년 2월6일(월)~2017년 2월17일(금)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